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A Study of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Influence of Public Library Service to Quality of Life

노 영 희 (Younghee Noh)*

박 양 하 (Yang-Ha Park)**

초 록

삶의 질 측정은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온 개념이며, 정부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전반적인 발전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 지표'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한 국가 정책 및 서비스의 효과 측정은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과 결합하여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객관적인 삶의 질 측정 지표인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적용하여 도서관 서비스가 실제로 삶의 질 범주에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조사하고, 나아가 사서가 인식하는 삶의 질 향상 정도와 일반 이용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향상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지표로 나타났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지표로 나타났다. 사서와 이용자 간의 인식 차이는 13개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는 5개 지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는 23개,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14개, 도서관 방문 횟수에 따른 차이는 9개 지표로 나타났다.

ABSTRACT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is a concept studied in the field of administration, economy and society. And It is a standard of measuring performance of government. Recently, in governments and global society, QoL (Quality of life) index is used to reflect overall development degree. National policy and service effectiveness measurement using QoL index is more persuasive when it is combined with 'Bottom-Up Spillover Theory'. This study applied 「National Quality of Life Index」, the object QoL index us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o see if the library service is recognized to actually hav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and furthermore, see the difference of quality of life improvement recognition by user and quality of life improvement degree recognized by the librarian. "Recognition regarding shortage of time" was the highest index, and "concentration of fine dust" was the lowest. Regarding the recognition difference between librarian and user,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13 index, while the recognition difference by gender showed difference in 5 index, difference by age was 23, difference by residence was 14, and difference by number of visits to library was 9.

키워드: 공공도서관, 삶의 질 지표, 상향확산이론, 사서, 이용자, 인식 차이
Public Library, QoL indicator, Bottom-Up spillover theory, Librarian, User,
the Differences of Perceptions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확산정보화부 전문위원(yhpark@nrc.re.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7년 2월 15일 논문심사일자 : 2017년 3월 7일 게재확정일자 : 2017년 3월 13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1): 45-77, 2017.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1.04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11월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정보통신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사회, 노동,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은 종전의 낮은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삶의 질은 47위로, 2015년 대비 7단계가 하락했다(국제무역연구원 2016). 국가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GDP 등의 산술 지표는 구체적인 정책 만족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에 삶의 질 측정은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온 개념이며, 정부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전반적인 발전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 지표'를 사용하는 추세이며, 이는 특정 국가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고명철과 최상욱(2012)의 논문에서는 삶의 질 개념이 정책의 효과성 분석,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 환경 개선 방안 도출, 사회현상 및 변화의 원인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인식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한 국가 정책 및 서비스의 효과 측정은 Sirgy(2001)의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과 결합하여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공공서비스와 삶의 질 측정은 상향확산이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삶의 질이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사회 환경이나 공공 서비스 만족도와 같은 외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동안 공공도서관의 신규 서비스를 홍보하는 보도 자료 등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용어가 많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범주에서 공공도서관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명확치 않으며, 삶의 질이라는 용어의 개념도 추상적인 경향이 있다. 통계청은 2014년 온라인으로 「국가 삶의 질 지표」를 공개하였다. 통계청의 이 지표는 물질 부문과 비물질 부문으로 구분되며, 12개 범주, 81개의 지표로 이루어진 객관적 측정 지표이다. 그 동안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헌정보학 연구로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성과측정, 서비스 실시 후의 만족도,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용 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삶의 질 측정 지표를 통한 검증 사례나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객관적인 삶의 질 측정 지표인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적용하여 도서관 서비스가 실제로 삶의 질 범주에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조사하고, 나아가 사서가 인식하는 삶의 질 향상 정도와 일반 이용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향상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이용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향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성과

측정을 위한 도서관용 삶의 질 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도서관 분야에서는 많이 시도되지 않은 삶의 질이라는 개념의 적용이 가능한 것 인지와 함께 어떤 지표가 상향확산이론에 근거 했을지, 어떤 지표가 이용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지표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행복 지수’, ‘웰빙 지수’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문헌조사를 통해 이론적 배경에서 먼저 정의하고, 둘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 중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 가능한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삶의 질 지표를 설문지로 개발하여, 사서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국내 전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40 개의 공공도서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서의 협조를 받아 우편 발송하여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KSDC DB에서 온라인 설문지를 개발하고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KSDC에 입력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그림 1〉 참조).

2. 이론적 배경

2.1 삶의 질

국가나 도시의 발전 정도를 경제적 성장 정도를 가지고 측정하던 시대가 지나고 삶의 질이나 행복, 정신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여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2012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나 OECD의 「보다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부탄의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영국의 「웰빙 지표(General Wellbeing)」와 같은 국가별 지표를 통해 그 실효성이 증명되고 있다.

삶의 질은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 연구자들마다의 정의가 다르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복(happiness)’, ‘생활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적 복리’, ‘생활수준(level of living)’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Evans 1994). 변필성(2005)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일상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조건과 그러한 조건에 대한



〈그림 1〉 연구 절차

사람들의 만족도”라고 정의하였다. 객관적인 조건에는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의 개인적인 사회적 특성과 주택, 공공시설 및 서비스, 자연환경과 같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의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임근식(2012)은 삶의 질에 대하여 시대와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한 사회의 경제와 정치, 사회의 발전 수준과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특성, 생활조건,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상대적 관점에서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확인 및 평가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삶의 질은 한 공동 사회의 주민들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에 근거하는 것으로 살기 좋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 근거하여 삶의 질은 상위 개념으로 만족감, 행복감, 웰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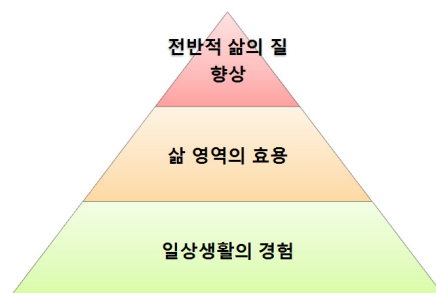
2.2 상향확산이론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한 나라

의 국민이 정부의 활동을 인식하는지를 이해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와 삶의 질에 대한 관계를 ‘상향확산이론(bottom-up theory)’을 통해 설명해왔다(Sirgy 2001). 상향확산이론과 대치되는 개념은 ‘하향확산이론(top-down theory)’으로서 이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보다 개인의 내적 성향 등에 의해 삶의 질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고명철(2013)은 공공서비스와 상향확산이론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의 정리에 따르면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은 일상생활에서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과 효용에 의해 결정되고, 일상생활의 만족이나 긍정적 경험이 주요 삶의 영역에 대한 효용 증가로 나타나며, 이는 다시 상향 확산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를 도식화 한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을 통한 일상적인 경험, 즉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 간의 관계(고명철 2013, 250)

2.3 삶의 질 지표 사례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사용된 삶의 질 지표는 통계청에서 2014년에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지표」이다. 「국민 삶의 질 지표(Korean Quality Life)」는 독립된 웹사이트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발표된 지표이다.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1년 기본 틀 및 지표체계를 개발한 이후, 2012년 주관적 웰빙 측정방안 연구를 통해 지표를 보완하고, 2013년 사회의 질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추가 보완한 후 2014년 1차 지표검토 위원회 운영과 독립적인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삶의 질 지표를 공개하였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삶의 질 측정 전문가 토론회, 검토위원회,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지표 변경 및 추가 검토 사항

등을 심의하며 지속적으로 지표를 다듬고 있다. 지표의 선정기준은 자료의 질, 적절성, 중립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 지표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 정책 부서에서는 정책 목표 설정과 성과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지표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행된 정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수 있다. 더불어 학문공동체에서는 동향에 대한 평가와 종합지수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2016).

2016년 「국민 삶의 질 지표」는 크게 물질 부문과 비물질 부문으로 구분되며, 12개의 범주, 81개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범주의 구분은 <표 1>과 같다.

<표 1> 국민 삶의 질 지표 (2016)

부문	범주	지표
물질 부문	소득/소비/자산	1인당 GNP, 균등화 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 평균 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고용/임금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근로시간, 저임금 근로자 비율, 일자리 만족도
	사회복지	공적연금 가입률,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주거	1인당 주거면적,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통근/통학 소요시간, 주거비용, 주거환경 만족도
비물질 부문	건강	기대수명,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비만 유병률,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교육	유아교육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학업 중단율, 학생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PISA 백분위순위, 대학졸업생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문화/여가	평균 여가시간, 여가활동 만족도,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1인당 국내외 여행 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여가 지출비율
	가족/공동체	가족접촉 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한부모 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 소속감
	시민참여	투표율,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시민의식, 부패인식 지수, 대인신뢰, 기관신뢰
	안전	강력범죄 발생률, 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이동학대 피해 경험률, 자기보고 범죄 피해율, 도로 사망률,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산업 재해율, 화재발생 건수
	환경	미세먼지 농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기후변화 불안도, 체감환경 만족도, 에너지 빈곤층 비율, 하수도 보급률, 폐기물 재활용 비율, GDP대비 온실가스배출량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 출처: 「국민 삶의 질 지표」 공식사이트(<http://qol.kostat.go.kr/blife/main.do>)

3. 연구 문제와 설문지 개발

3.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제시된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을 통해 상향확산이론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이용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이 모든 삶의 질 지표 범주에서 영향력이 있다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어떤 지표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사서의 인식과 이용자가 인식하는 영향력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이용자의 삶에 밀접한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 필요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 설문 조사 분석을 통해 각각의 문제를 검증하였다.

- Q1.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 Q2. 사서가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에 차이가 있는가?
- Q3.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에 차이가 있는가?

3.2 설문지 개발

설문지 개발은 통계청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2016년 12월 1일자 「국민 삶의 질 지표(Korea Quality of Life)」의 모든 지표를 빠짐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질문은 각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각각의 삶의 질 지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사서와 이용자별 인식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 구분,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도서관 방문횟수별 인식 정도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인식 정도에 대한 질문은 영향정도에 따라 '⑤ 매우 그렇다'에서 '① 매우 아니다'를 묻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표 2>와 같다.

설문에 사용된 질문은 총 8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삶의 질 지표에 대한 문항 81개, 이용자 특성에 대한 문항 5개, 자유의견 1개로 구성하였다. <표 3>은 설문 문항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설문지 초안을 개발한 이후, 4회의 프리테스트를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프리테스트를 통해 내용의 가독성과 설문 문항 이해도, 문항 순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

<표 2> 공공도서관 서비스 영향정도 조사 문항 예시

지표명	지표설명	영향정도				
평균 여가 시간	도서관은 우리 국민 1인이 하루 평균 소비하는 여가시간을 늘리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여가시간: 교제활동, 일반인 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스포츠 및 레저, 취미 등의 여가시간]	①	②	③	④	⑤

〈표 3〉 설문 문항 구성

내용	항목	문항 수	문항번호
일반정보조사	이용자 구분	1	A-1
	성별	1	C-1
	연령별	1	C-2
	거주지별	1	C-3
	도서관 방문횟수	1	C-4
삶의 질 지표별 영향정도 조사	문화/여가 범주	6	B-1
	주관적 웰빙 범주	3	B-2
	가족/공동체 범주	8	B-3
	시민참여 범주	7	B-4
	교육 범주	9	B-5
	건강 범주	9	B-6
	안전 범주	9	B-7
	환경 범주	8	B-8
	소득/소비/자산 범주	8	B-19
	고용/임금 범주	6	B-10
	사회복지 범주	3	B-11
	주거 범주	5	B-12
	기타	지표 제안	1

항을 도출하였다. 프리테스트는 5명의 대학원생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프리테스트 결과를 통해 문구를 수정하였고, 공공도서관 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주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 이동하는 등의 순서 조정 의견을 반영하였다.

4. 설문 조사 분석 결과

4.1 조사 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설문조사는 국내 전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에서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목록’(2015. 12 기준)을 참고하여 총

40개의 공공도서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공공도서관에 반송용 봉투와 함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온라인 설문지의 경우, 오프라인 설문 응답이 어려운 경우(우편물의 분실, 반송 등)를 고려하여 KSDC DB(<http://ksdcdb.kr>)에서 설문지를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1월 19일까지 진행하였다. 오프라인으로 총 2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7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60.71%였으며, 온라인으로 1부를 회수하여 총 171부를 회수하였다.

4.2 분석 방법

설문지 분석을 위해 KSDC DB 사이트의 분석 기능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둘째, 삶의 질 성과지표별 영향력 인식 정도는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셋째, 이용자 구분과 성별에 따른 인식 정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넷째, 범주형 자료의 분석을 위해 χ^2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유의수준은 $p < 0.05$ 에서 검증하였다.

4.3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

와 같다. 사서의 응답비율은 전체의 38.6%이며, 일반 이용자의 응답비율은 61.4%이다. 여성의 응답비율이 74.27%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연령 대로는 30대가 43.8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거주지별로는 37.43%의 응답자가 서울/경기권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 횟수별로는 주 2회 정도 방문한다는 이용자 19.88%, 주 1회 이내 방문한다는 이용자 16.37% 순으로 응답하였다.

4.4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삶의 질 지표 영향정도 분석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근거로 12개의 범주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N(명)	비율(%)	계	
				N(명)	비율(%)
이용자 구분	사서	66	38.60	171	100
	이용자	105	61.40		
성별	남	44	25.73	171	100
	여	127	74.27		
연령	29세 이하	28	16.37	171	100
	30대	75	43.86		
	40대	42	24.56		
	50대	18	10.53		
	60대 이상	8	4.68		
거주지	서울/경기	64	37.43	171	100
	호서	27	15.79		
	영남	35	20.47		
	호남	25	14.62		
	관동	8	4.68		
	제주	12	7.02		
방문 횟수	방문경험 없음	0	0.00	171	100
	주 1회 이내	28	16.37		
	주 2회	34	19.88		
	주 3회	17	9.94		
	주 4회 이상	92	53.80		

별로 공공도서관의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삶의 질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치는 3.00 이상으로 설정하고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81개 지표 중 상위 20위에 해당되는 지표도 함께 살펴보았다.

첫째, 문화·여가 범주의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이 평균 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은 개인의 시간활용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또한 문화·여가 범주의 경우 도서관 경험이 6개의 모든 삶의 질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지표는 상위 20개의 지표 중 1위의 점수이며, 6개의 지표 중, '여가 활용 만족도(2위)', '평균 여가 시간(7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19위)'이 20위 안에 포함

되었다(〈표 5〉 참조).

둘째, 주관적 웰빙 범주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 '긍정정서'가 평균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정서는 "도서관은 개인이 느끼는 삶에서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주관적 웰빙 범주 역시 문화·여가 범주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표의 평균이 3.00 이상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지표가 상위 20위 안에 포함되었는데, '긍정정서(3위)', '삶에 대한 만족도(4위)', '부정정서(6위)'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셋째, 가족·공동체 범주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소속감'이 3.56, '가족관계 만족도'가 3.4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소속감은 "도서관은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

〈표 5〉 문화·여가 범주의 영향정도

평가지표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평균 여가 시간	10	5.85	18	10.53	36	21.05	57	33.33	50	29.24	3.70	1.169
여가 활용 만족도	4	2.34	19	11.11	27	15.79	64	37.43	57	33.33	3.88	1.067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3	1.75	19	11.11	27	15.79	65	38.01	57	33.33	3.90	1.044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13	7.60	44	25.73	52	30.41	35	20.47	27	15.79	3.11	1.180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8	4.68	29	16.96	56	32.75	48	28.07	30	17.54	3.37	1.100
문화여가 지출 비율	6	3.51	43	25.15	56	32.75	40	23.39	26	15.21	3.22	1.093

〈표 6〉 주관적 웰빙 범주의 영향정도

평가지표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삶에 대한 만족도	5	2.92	19	11.11	19	11.11	81	47.37	47	27.49	3.85	1.039
긍정정서	6	3.51	16	9.36	20	11.70	79	46.20	50	29.24	3.88	1.045
부정정서	4	2.34	24	14.04	32	18.71	62	36.26	49	28.66	3.75	1.091

한 응답이며, '가족관계 만족도'는 "도서관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가족·공동체 범주는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지표를 제외한 6개 지표가 평균 3.00 이상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20위 중 '지역사회 소속감(11위)', '가족관계 만족도(17위)', '사회단체 참여율(18위)'이 포함되었다(〈표 7〉 참조).

넷째, 시민참여 범주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평균 3.63, '기관신뢰'가 3.43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도서관은 1년간 자원봉사활동

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며, '기관신뢰'는 "도서관은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시민참여 범주는 모든 지표가 평균 3.00 이상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9위)', '기관신뢰(16위)'가 상위 20위 지표에 포함되었다(〈표 8〉 참조).

다섯째, 교육 범주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생교육 참여율'이 평균 3.85, '학교교육의 효과'가 3.63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율은 "도서관은 만 25~64세의 성인이

〈표 7〉 가족·공동체 범주의 영향정도

평가지표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가족접촉 빈도	6	3.51	36	21.05	61	35.67	42	24.56	26	15.21	3.27	1.067
가족관계 만족도	5	2.92	27	15.79	59	34.50	52	30.41	28	16.37	3.42	1.033
한부모가구 비율	18	10.53	50	29.24	61	35.67	25	14.62	17	9.94	2.84	1.113
독거노인 비율	20	11.70	55	32.16	61	35.67	21	12.28	14	8.19	2.73	1.084
자살률	11	6.43	53	30.99	53	30.99	45	26.32	19	11.11	3.05	1.131
사회적 관계망	5	2.92	45	26.32	53	30.99	51	29.83	17	9.94	3.18	1.025
사회단체 참여율	2	1.17	42	24.56	36	21.05	68	39.77	23	13.45	3.40	1.037
지역사회 소속감	3	1.75	36	21.05	31	18.13	64	37.43	37	21.64	3.56	1.101

〈표 8〉 시민참여 범주의 영향정도

평가지표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투표율	6	3.51	45	26.32	64	37.43	38	22.22	18	10.53	3.10	1.021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8	4.68	44	25.73	53	30.99	43	25.15	23	13.45	3.17	1.101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	1.17	30	17.54	41	23.98	55	32.16	43	25.15	3.63	1.079
시민의식	8	4.68	35	20.47	61	35.67	39	22.81	28	16.37	3.26	1.103
부패인식지수	5	2.92	46	26.90	48	28.07	43	25.15	29	16.96	3.26	1.120
대인신뢰	5	2.92	33	19.30	58	33.92	50	29.24	25	14.62	3.33	1.040
기관신뢰	7	4.09	30	17.54	53	30.99	45	26.32	36	21.05	3.43	1.127

지난 1년간 평생학습에 참여한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며, ‘학교교육의 효과’는 “도서관은 생활, 취업 및 직업에 활용과 같은 교육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교육 범주는 모든 지표가 평균 3.00 이상으로 공공도서관이 교육과 관련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개 지표를 제외한 7개 지표가 상위 20위 안에 포함되었는데, 포함된 지표는 ‘평생교육 참여율(5위)’, ‘학교교육의 효과(10위)’, ‘PISA 백분위 순위(12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13위)’, ‘대학졸업생 취업률(14위)’, ‘고등교육 이수율(20위)’이다(〈표 9〉 참조).

여섯째, 건강 범주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인식정도’가 평균 3.64로 나타났다으며, 스트레스 인식정도는 “도서관은 일상생활에서 느낀 스트레스 정도를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건강 범주는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건강수준별 기대여명’과 같은 4개 범주만이 평균 3.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20위 중에는 ‘스트레스 인식정도(8위)’만이 포함되었다(〈표 10〉 참조).

〈표 9〉 교육 범주의 영향정도

평가지표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유아교육 취학률	7	4.09	48	28.07	49	28.66	42	24.56	25	14.62	3.18	1.119
고등교육 이수율	4	2.34	37	21.64	51	29.83	49	28.66	30	17.54	3.37	1.079
평생교육 참여율	2	1.17	22	12.87	34	19.88	55	32.16	58	33.92	3.85	1.068
학업 중단율	4	2.34	34	19.88	66	38.60	43	25.15	24	14.04	3.29	1.01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6	3.51	36	21.05	38	22.22	53	30.99	38	22.22	3.47	1.155
PISA 백분위 순위	2	1.17	35	20.47	42	24.56	63	36.84	29	16.96	3.48	1.037
대학졸업생 취업률	3	1.75	39	22.81	43	25.15	48	28.07	38	22.22	3.46	1.123
학교교육의 효과	4	2.34	27	15.79	40	23.39	58	33.92	42	24.56	3.63	1.090
학교생활 만족도	3	1.75	37	21.64	50	29.24	43	25.15	38	22.22	3.44	1.112

〈표 10〉 건강 범주의 영향정도

평가지표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기대수명	10	5.85	42	24.56	60	35.09	32	18.71	27	15.79	3.14	1.134
고혈압 유병률	13	7.60	59	34.50	59	34.50	22	12.87	18	10.53	2.84	1.087
당뇨병 유병률	11	6.43	56	32.75	64	37.43	21	12.28	19	11.11	2.89	1.071
주관적 건강평가	7	4.09	53	30.99	48	28.07	39	22.81	24	14.04	3.12	1.121
스트레스 인식정도	1	0.59	30	17.54	37	21.64	65	38.01	38	22.22	3.64	1.033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4	2.34	47	27.49	55	32.16	41	23.98	24	14.04	3.20	1.066
비만 유병률	13	7.60	59	34.50	62	36.26	18	10.53	19	11.11	2.83	1.085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5	8.77	66	38.60	59	34.50	14	8.19	17	9.94	2.72	1.070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18	10.53	69	40.35	50	29.24	19	11.11	15	8.77	2.67	1.089

일곱째, 안전 범주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가 평균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는 "도서관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안전 범주는 '강력범죄 발생률'과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2개 지표만이 평균 3.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위에 포함된 지표는 없었다(〈표 11〉 참조).

여덟째, 환경 범주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 '체감 환경 만족도'가 평균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감 환경 만족도는 "도서관

은 현재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환경 범주는 '체감 환경 불안도' 지표만이 평균 3.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위에 포함되는 지표는 없었으며,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대한 영향력은 2.62점으로 81개 지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표 12〉 참조).

아홉째, 소득/소비/자산 범주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 '소비생활 만족도'가 평균 3.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생활 만족도는 "도서관은 개인의 소비생활에 대한 주관

〈표 11〉 안전 범주의 영향정도

평가지표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강력범죄 발생률	7	4.09	60	35.09	47	27.49	38	22.22	19	11.11	3.01	1.090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7	4.09	40	23.39	64	37.43	40	23.39	20	11.70	3.15	1.040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14	8.19	54	31.58	59	34.50	26	15.21	18	10.53	2.88	1.100
아동학대 피해경험률	12	7.02	51	29.83	67	39.18	23	13.45	18	10.53	2.91	1.064
자기보고 범죄 피해율	14	8.19	60	35.09	59	34.50	22	12.87	16	9.36	2.80	1.072
도로 사망률	22	12.87	61	35.67	54	31.58	18	10.53	16	9.36	2.68	1.120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19	11.11	59	34.50	59	34.50	22	12.87	12	7.02	2.70	1.057
산업재해율	23	13.45	55	32.16	53	30.99	23	13.45	17	9.94	2.74	1.155
화재 발생 건수	24	14.04	57	33.33	59	34.50	17	9.94	14	8.19	2.65	1.098

〈표 12〉 환경 범주의 영향정도

평가지표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미세먼지 농도	25	14.62	65	38.01	50	29.24	12	7.02	19	11.11	2.62	1.159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1	6.43	54	31.58	55	32.16	29	16.96	22	12.87	2.98	1.124
기후변화 불안도	17	9.94	57	33.33	56	32.75	19	11.11	22	12.87	2.84	1.157
체감 환경 만족도	11	6.43	36	21.05	46	26.90	39	22.81	39	22.81	3.35	1.224
에너지 빈곤층 비율	15	8.77	51	29.83	68	39.77	17	9.94	20	11.70	2.86	1.097
하수도 보급률	20	11.70	55	32.16	62	36.26	16	9.36	18	10.53	2.75	1.117
폐기물 재활용 비율	20	11.70	51	29.83	54	31.58	21	12.28	25	14.62	2.88	1.212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1	12.28	50	29.24	59	34.50	19	11.11	22	12.87	2.83	1.178

적인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환경 범주는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 ‘소비생활 만족도’ 3개 지표가 평균 3.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위에 포함된 지표는 없었다(〈표 13〉 참조).

열 번째, 고용/임금 범주의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평균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업률은 “도서관은 경제활동 인구(취업자와 실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고용/임금 범주는 ‘고용률’, ‘실업률’, ‘일자리만족도’ 3개 지표가 평균 3.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위에 포함된 지표는 없었다(〈표 14〉 참조).

열한 번째, 사회복지 범주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평균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도서관은 공적 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지출 비용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사회복지 범주의 모든 지표가 평균 3.00을 넘지 못했으며, 상위 20위에도 모든 지표가 포함되지 못했다(〈표 15〉 참조).

열두 번째, 주거 범주의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평균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환경 만족도는 “도서관은 거주지의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표 13〉 소득/소비/자산 범주의 영향정도

평가지표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1인당 GNI	13	7.60	39	22.81	68	39.77	29	16.96	22	12.87	3.05	1.105
균등화 중위소득	12	7.02	43	25.15	70	40.94	23	13.45	23	13.45	3.01	1.101
균등화 중위소비	13	7.60	43	25.15	75	43.86	19	11.11	21	12.28	2.95	1.078
가구평균 순자산	14	8.19	48	28.07	69	40.35	23	13.45	17	9.94	2.89	1.065
지니계수	12	7.02	50	29.24	66	38.60	20	11.70	23	13.45	2.95	1.110
상대적 빈곤율	13	7.60	52	30.41	65	38.01	20	11.70	21	12.28	2.91	1.102
소득만족도	8	4.68	50	29.24	68	39.77	25	14.62	20	11.70	2.99	1.049
소비생활 만족도	8	4.68	43	25.15	62	36.26	35	20.47	23	13.45	3.13	1.082

〈표 14〉 고용/임금 범주의 영향정도

평가지표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고용률	5	2.92	41	23.98	57	33.33	45	26.32	23	13.45	3.23	1.053
실업률	5	2.92	41	23.98	54	31.58	44	25.73	27	15.79	3.28	1.085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16	9.36	48	28.07	58	33.92	27	15.79	22	12.87	2.95	1.154
근로시간	20	11.70	50	29.24	60	35.09	23	13.45	18	10.53	2.82	1.136
저임금 근로자 비율	18	10.53	52	30.41	66	38.60	19	11.11	16	9.36	2.78	1.082
일자리만족도	11	6.43	46	26.90	62	36.26	31	18.13	21	12.28	3.03	1.098

〈표 15〉 사회복지 범주의 영향정도

평가지표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공적연금 가입률	19	11.11	48	28.07	64	37.43	21	12.28	19	11.11	2.84	1.129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18	10.53	42	24.56	60	35.09	34	19.88	17	9.94	2.94	1.126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21	12.28	60	35.09	55	32.16	17	9.94	18	10.53	2.71	1.135

〈표 16〉 주거 범주의 영향정도

평가지표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1인당 주거면적	24	14.04	57	33.33	62	36.26	15	8.77	13	7.60	2.63	1.07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4	14.04	59	34.50	58	33.92	10	5.85	20	11.70	2.67	1.153
통근/통학 소요시간	30	17.54	49	28.66	57	33.33	19	11.11	16	9.36	2.66	1.169
주거비용	20	11.70	54	31.58	56	32.75	21	12.28	20	11.70	2.81	1.160
주거환경 만족도	15	8.77	36	21.05	51	29.83	35	20.47	34	19.88	3.22	1.234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주거 범주는 ‘주거환경 만족도’ 지표만 평균 3.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위에도 모든 지표가 포함되지 못했다(〈표 16〉 참조).

이상의 분석을 통해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 근거한 조사 결과로 문화/여가 범주와 주관적 웰빙 범주, 그리고 교육 범주에서 공공 도서관 이용이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이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반대로 사회복지 범주와 주거, 환경 등의 범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5 사서와 일반이용자의 인식 차이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서와 일반 이용자 사이의 인식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문화/여가 범주에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로 “도서관은 인구 1인당 1년간 국내/해외여행에 참가한 평균 일수를 늘리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사서는 평균 2.88을 보인 반면, 이용자는 3.26을 나타내었다.

가족/공동체 범주에서는 ‘한부모 가구 비율’,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 소속감’ 지표에서 인식 차이를 보였다. ‘한부모 가구비율’은 “도서관은 한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서보다 이용자가 3.01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사회단체 참여율’은 “도서관은 지난 1년간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며, 사서가 3.68로 이용자에 비해 높은 평균의 응답을 보였다. ‘지역사회 소속감’은 “도서관은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서가 3.91로 3.34의 응답을 보인 이용자에 비해 높은 영향정도를 나타냈다.

시민참여 범주에서는 “도서관은 개인의 행위가 지역의 정치 및 행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한 응답인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지표에서 사서가 3.41로 높게 응답하였고, “도서관은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지표에서도 역시 사서가 3.86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교육 범주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율’ 지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도서관은 만 25~64세의 성인이 지난 1년간 평생학습에 참여한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서가 4.08로 이용자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건강 범주도 역시 ‘스트레스 인식정도’ 지표만 차이가 있었고, 사서의 응답이 3.83으로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안전 범주에서는 “도서관은 지난 1년간 1회 이상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인 ‘자기보고 범죄 피해율’ 지표에서 이용자가 2.94로 높게 응답하여 인식 차이를 보였고, “도서관은 1년간 발생한 화재사고의 건수를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인 ‘화재 발생 건수’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2.78로 높았다.

고용/임금 범주에서는 ‘고용률’과 ‘근로 시

간’ 지표에서 차이가 있었다. ‘고용률’은 “도서관은 만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서가 3.47로 이용자보다 높은 응답 결과를 보였고, “도서관은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 ‘근로시간’ 지표에서는 이용자의 평균이 2.96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범주와 환경범주, 소비범주, 사회복지 범주, 주거 범주에서는 이용자와 사서 간의 유의미한 평균 차이는 없었다. 사서와 이용자 간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표 17>과 같다.

4.6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인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범주별로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방문 횟수별로 평균 점수에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문화/여가 범주에서는 응답자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없었으며, <표 18>은 문화/여가 범주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주관적 웰빙 범주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연령별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정서’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40대에서 3.95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50대 응답자가 가장 낮았다. ‘긍정정서’ 지표에서는 40대가 4.02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50대가 3.39로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적

〈표 17〉 응답자 구분에 따른 삶의 질 지표 인식 차이

항목	M	Std	신분				
			구분	M	t	p	
문화/여가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3.111	1.18	사서	2.88	-2.06	0.041
				이용자	3.26		
가족/ 공동체	한부모가구 비율	2.842	1.113	사서	2.58	-2.519	0.013
				이용자	3.01		
	사회단체 참여율	3.398	1.037	사서	3.68	3.009	0.003
				이용자	3.22		
	지역사회 소속감	3.561	1.101	사서	3.91	3.414	0.001
				이용자	3.34		
시민참여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3.17	1.101	사서	3.41	2.283	0.024
				이용자	3.02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3.626	1.079	사서	3.86	2.375	0.019
				이용자	3.48		
교육	평생교육 참여율	3.848	1.068	사서	4.08	2.283	0.024
				이용자	3.71		
건강	스트레스 인식정도	3.637	1.033	사서	3.83	2.095	0.038
				이용자	3.51		
안전	자기보고 범죄 피해율	2.801	1.072	사서	2.58	-2.205	0.029
				이용자	2.94		
	화재 발생 건수	2.649	1.098	사서	2.44	-1.998	0.047
				이용자	2.78		
고용/임금	고용률	3.234	1.053	사서	3.47	2.351	0.02
				이용자	3.09		
	근로시간	2.819	1.136	사서	2.59	-2.1	0.037
				이용자	2.96		

〈표 18〉 응답자 특성에 따른 문화/여가 범주에 대한 인식 차이

항목	성별				연령				거주지				방문 횟수			
	구분	M	t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평균 여가 시간	남	3.75	0.355	0.723	29세 이하	3.64	22.820	0.119	서울/경기	3.47	30.290	0.065	없음	0.00	10.170	0.601
					30대	3.69			호서	3.37			주 1회 이내	3.18		
					40대	3.95			영남	4.00			주 2회	3.77		
	여	3.68	0.355	0.723	50대	3.17			호남	3.88			주 3회	3.82		
					60세 이상	3.75			관동	4.38			주 4회 이상	3.80		
					제주	3.92										
여가 활용 만족도	남	3.89	0.024	0.981	29세 이하	3.82	17.340	0.364	서울/경기	3.70	26.200	0.159	없음	0.00	15.430	0.219
					30대	3.92			호서	3.63			주 1회 이내	3.43		
					40대	3.91			영남	4.14			주 2회	3.91		
	여	3.88	0.024	0.981	50대	3.72			호남	4.04			주 3회	4.00		
					60세 이상	4.00			관동	3.88			주 4회 이상	3.99		
					제주	4.33										

항목	성별				연령				거주지				방문 횟수			
	구분	M	t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남	3.98	0.564	0.573	29세 이하	3.71	20.110	0.215	서울/경기	3.69	28.120	0.107	없음	0.00	15.660	0.207
					30대	3.92			호서	3.56			주 1회 이내	3.46		
					40대	4.10			영남	4.17			주 2회	4.15		
	여	3.87			50대	3.61			호남	4.00			주 3회	3.94		
					60세 이상	4.00			관동	4.50			주 4회 이상	3.94		
					제주	4.42										
1인당 국내의 여행 일수	남	3.18	0.46	0.646	29세 이하	2.96	13.360	0.646	서울/경기	3.03	14.120	0.824	없음	0.00	9.920	0.623
					30대	3.09			호서	3.30			주 1회 이내	3.11		
					40대	3.21			영남	3.00			주 2회	3.27		
	여	3.09			50대	3.11			호남	2.92			주 3회	3.65		
					60세 이상	3.25			관동	3.38			주 4회 이상	2.96		
					제주	3.67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남	3.36	-0.033	0.973	29세 이하	3.18	22.680	0.123	서울/경기	3.28	18.030	0.586	없음	0.00	13.670	0.323
					30대	3.36			호서	3.30			주 1회 이내	3.21		
					40대	3.62			영남	3.31			주 2회	3.56		
	여	3.37			50대	3.11			호남	3.48			주 3회	3.65		
					60세 이상	3.38			관동	4.00			주 4회 이상	3.29		
					제주	3.50										
문화 여가 지출 비율	남	3.27	0.396	0.693	29세 이하	3.11	14.840	0.536	서울/경기	2.88	24.160	0.235	없음	0.00	10.430	0.579
					30대	3.24			호서	3.30			주 1회 이내	3.21		
					40대	3.43			영남	3.26			주 2회	3.35		
	여	3.20			50대	2.83			호남	3.56			주 3회	3.59		
					60세 이상	3.13			관동	3.50			주 4회 이상	3.10		
					제주	3.83										

인 정서'를 연령이 낮을수록 도서관 서비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별로는 '긍정정서' 지표에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가 4.4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호서가 3.59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방문 횟수별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삶에 대한 만족도' 지표로 주 4회 이상 방문하는 이용자가 3.98로 가장 높았으며, 주 3회 방문자가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표 19> 참조).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공동체 범주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남

성 응답자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한부모 가구 비율'과 '사회적 관계망' 지표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 비율'은 남성이 3.23으로 여성 2.7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은 일상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 '사회적 관계망' 역시 남성의 응답이 3.48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공동체 범주에서 연령과 거주지에 따른 인식 차이는 없었으며, 방문 횟수에 따른 차이를 보인 지표는 '독거노인 비율'과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

〈표 19〉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 웰빙 범주에 대한 인식도

항목	성별				연령				거주지				방문 횟수			
	구분	M	t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삶에 대한 만족도	남	3.98	0.915	0.362	29세 이하	3.93	26.490	0.047	서울/경기	3.75	19.580	0.484	없음	0.00	23.050	0.027
					30대	3.93			호서	3.59			주 1회 이내	3.68		
					40대	3.95			영남	3.89			주 2회	3.79		
	여	3.81			50대	3.33			호남	3.96			주 3회	3.59		
					60세 이상	3.50			관동	4.00			주 4회 이상	3.98		
					제주	4.58										
공경정서	남	4.09	1.537	0.126	29세 이하	3.93	43.500	0.000	서울/경기	3.75	34.300	0.024	없음	0.00	16.430	0.172
					30대	3.95			호서	3.59			주 1회 이내	3.79		
					40대	4.02			영남	4.06			주 2회	3.97		
	여	3.81			50대	3.39			호남	4.08			주 3회	3.77		
					60세 이상	3.50			관동	3.75			주 4회 이상	3.90		
					제주	4.42										
부정정서	남	3.84	0.651	0.516	29세 이하	3.64	23.830	0.093	서울/경기	3.61	30.750	0.059	없음	0.00	11.200	0.512
					30대	3.77			호서	3.63			주 1회 이내	3.68		
					40대	3.88			영남	3.71			주 2회	3.79		
	여	3.72			50대	3.61			호남	4.04			주 3회	3.77		
					60세 이상	3.50			관동	3.63			주 4회 이상	3.75		
					제주	4.33										

소속감이다. ‘독거노인 비율’은 “도서관은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살고 있는 노인가구의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주 3회 방문자가 3.06으로 가장 높았다. ‘자살률’은 “도서관은 인구 10만 명 당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를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역시 주 3회 방문자가 3.18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사회적 관계망’ 지표의 경우 주 3회 방문자가 3.41로, ‘사회단체 참여율’ 지표 역시 주 3회 방문자가 3.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은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인 ‘지역사회 소속감’ 지표는 주 4회 이상 방문자의 평균이 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0〉 참조).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시민참여 범주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없었으며,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더 높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29세 이하 이용자가 3.82의 응답을 보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지표와 60세 이상의 이용자층에서 4.0의 응답을 보인 ‘시민의식’ 지표, 역시 60세 이상의 이용자가 4.25로 응답한 ‘부패인식 지수’ 지표이다.

거주지별 차이를 보인 지표는 ‘시민의식’ 지표로 “도서관은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의무(투표참여, 세금납부, 법/규칙 준수 등)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며, 제주 지역의 이용자

가 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문 횟수에 따른 차이를 보인 지표는 2개로 '투표율'과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지표이다. '투표율'은 "도서관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주 3회 이상 방문자의 응답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지표 역시 주 3회 이상 방문자의 응답 평균이 3.77로 가장 높았다(〈표 21〉 참조).

응답자 특성에 따른 교육 범주의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 거주지별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유아교육 취학률' 지표로 이는 "도서관은 만 3~5세 인구 중 어린이집/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의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제주 지역 거주자가 평균 3.9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반면, 서울지역 거주자의 응답은 2.88로 지역 간 큰 평균 차이를 보였다.

방문 횟수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난 지표는 없었으나, 대체적으로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응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표 22〉 참조).

응답자 특성에 따른 건강 범주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지표는 없었다.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로 이는 "도서관은 진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60대 이상의 응답자가 평균 3.63을 나타낸 반면,

30대 이용자는 2.61의 낮은 응답을 보였다.

거주지에 따른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당뇨병 유병률'로 이 지표는 "도서관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주요 만성질환인 당뇨에 대한 의사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나타낸다. 호서지역 거주자의 경우 평균 3.48이고, 영남 지역 거주자의 경우 2.60의 낮은 응답을 보여 지역 간 인식 차이가 있었다.

도서관 방문 횟수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도서관은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실천한 사람의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률' 지표이다. 결과 주 3회 방문자의 경우 평균 3.35의 응답을 보였다(〈표 23〉 참조).

응답자 특성에 따른 안전 범주의 인식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강력범죄 발생률'과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화재발생건수' 지표이다. 세 지표 모두 남성이 3.36과 3.43, 2.96으로 여성에 비해 높게 응답하여 도서관 서비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력범죄 발생률'은 "도서관은 강력범죄의 인구 수 대비 발생 건수를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고,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는 "도서관은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의 응답이다. '화재발생건수' 지표는 "도서관은 1년간 발생한 화재사고의 건수를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표 2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시민참여 범주에 대한 인식도

항목	성별				연령				거주지				방문 횟수			
	구분	M	t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투표율	남	3.32	1.517	0.134	29세 이하	2.75	21.570	0.158	서울/경기	3.00	18,220	0.573	없음	0.00	25,900	0.011
					30대	3.16			호서	3.11			주 1회 이내	2.82		
					40대	3.07			영남	2.94			주 2회	2.94		
	여	3.02			50대	3.44			호남	3.20			주 3회	3.65		
					60세 이상	3.13			관동	3.50			주 4회 이상	3.14		
					제주	3.58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남	3.36	1.36	0.176	29세 이하	2.96	24,260	0.084	서울/경기	3.11	29,190	0.084	없음	0.00	45,690	0.000
					30대	3.24			호서	3.00			주 1회 이내	2.57		
					40대	3.05			영남	2.94			주 2회	2.85		
	여	3.10			50대	3.33			호남	3.40			주 3회	3.77		
					60세 이상	3.50			관동	3.75			주 4회 이상	3.36		
					제주	3.67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남	3.66	0.237	0.813	29세 이하	3.82	34,990	0.004	서울/경기	3.53	25,780	0.173	없음	0.00	19,900	0.069
					30대	3.52			호서	3.30			주 1회 이내	3.11		
					40대	3.60			영남	3.83			주 2회	3.59		
	여	3.61			50대	3.78			호남	3.80			주 3회	3.82		
					60세 이상	3.75			관동	3.75			주 4회 이상	3.76		
					제주	3.83										
시민의식	남	3.30	0.266	0.791	29세 이하	2.93	34,610	0.004	서울/경기	3.05	31,490	0.049	없음	0.00	15,000	0.241
					30대	3.24			호서	3.33			주 1회 이내	2.96		
					40대	3.31			영남	3.00			주 2회	3.09		
	여	3.24			50대	3.39			호남	3.68			주 3회	3.35		
					60세 이상	4.00			관동	3.38			주 4회 이상	3.39		
					제주	4.00										
부패인식 지수	남	3.43	1.161	0.247	29세 이하	2.89	27,390	0.037	서울/경기	3.05	27,750	0.115	없음	0.00	14,290	0.282
					30대	3.24			호서	3.41			주 1회 이내	3.00		
					40대	3.33			영남	3.06			주 2회	3.18		
	여	3.21			50대	3.33			호남	3.56			주 3회	3.53		
					60세 이상	4.25			관동	3.38			주 4회 이상	3.33		
					제주	4.00										
대인신뢰	남	3.39	0.391	0.696	29세 이하	3.29	26,010	0.054	서울/경기	3.25	23,630	0.259	없음	0.00	16,640	0.164
					30대	3.33			호서	3.26			주 1회 이내	3.11		
					40대	3.36			영남	3.29			주 2회	3.24		
	여	3.32			50대	3.22			호남	3.60			주 3회	3.35		
					60세 이상	3.63			관동	3.25			주 4회 이상	3.44		
					제주	3.58										
기관신뢰	남	3.32	-0.742	0.459	29세 이하	3.25	20,200	0.211	서울/경기	3.27	25,430	0.185	없음	0.00	11,620	0.477
					30대	3.47			호서	3.63			주 1회 이내	3.46		
					40대	3.33			영남	3.37			주 2회	3.12		
	여	3.47			50대	3.50			호남	3.56			주 3회	3.59		
					60세 이상	4.00			관동	3.13			주 4회 이상	3.50		
					제주	3.92										

〈표 22〉 응답자 특성에 따른 교육 범주에 대한 인식도

항목	성별				연령				거주지				방문 횟수			
	구분	M	t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유아교육 취학률	남	3.34	1.14	0.256	29세 이하	3.11	17.640	0.346	서울/ 경기	2.88	36.340	0.014	없음	0.00	9.900	0.625
					30대	3.11			호서	3.33			주 1회 이내	3.29		
					40대	3.10			영남	3.17			주 2회	3.03		
	여	3.12			50대	3.50			호남	3.48			주 3회	3.47		
					60세 이상	3.75			관동	3.00			주 4회 이상	3.14		
					제주	3.92										
고등교육 이수율	남	3.46	0.571	0.569	29세 이하	3.36	16.860	0.395	서울/ 경기	3.22	22.130	0.334	없음	0.00	10.340	0.586
					30대	3.35			호서	3.48			주 1회 이내	3.50		
					40대	3.26			영남	3.26			주 2회	3.24		
	여	3.35			50대	3.50			호남	3.64			주 3회	3.41		
					60세 이상	4.00			관동	3.63			주 4회 이상	3.38		
					제주	3.58										
평생교육 참여율	남	3.73	-0.869	0.386	29세 이하	3.86	16.820	0.397	서울/ 경기	3.66	22.010	0.340	없음	0.00	11.820	0.460
					30대	3.84			호서	3.74			주 1회 이내	3.86		
					40대	3.88			영남	3.86			주 2회	3.50		
	여	3.89			50대	3.67			호남	4.16			주 3회	3.94		
					60세 이상	4.13			관동	4.00			주 4회 이상	3.96		
					제주	4.33										
학업 중단율	남	3.43	1.103	0.272	29세 이하	3.14	21.020	0.178	서울/ 경기	3.06	29.930	0.071	없음	0.00	8.950	0.707
					30대	3.28			호서	3.44			주 1회 이내	3.46		
					40대	3.26			영남	3.40			주 2회	3.09		
	여	3.24			50대	3.28			호남	3.36			주 3회	3.53		
					60세 이상	4.00			관동	3.13			주 4회 이상	3.26		
					제주	3.75										
학생 1인당 사 교육비 지출액	남	3.46	-0.127	0.899	29세 이하	3.39	12.310	0.723	서울/ 경기	3.25	24.480	0.222	없음	0.00	8.350	0.758
					30대	3.56			호서	3.56			주 1회 이내	3.57		
					40대	3.38			영남	3.37			주 2회	3.41		
	여	3.48			50대	3.22			호남	3.92			주 3회	3.47		
					60세 이상	4.00			관동	3.50			주 4회 이상	3.47		
					제주	3.83										
PISA 백분위 순위	남	3.48	-0.017	0.987	29세 이하	3.18	20.460	0.200	서울/ 경기	3.42	20.400	0.433	없음	0.00	16.110	0.186
					30대	3.67			호서	3.37			주 1회 이내	3.39		
					40대	3.36			영남	3.37			주 2회	3.38		
	여	3.48			50대	3.39			호남	3.60			주 3회	3.59		
					60세 이상	3.63			관동	3.88			주 4회 이상	3.52		
					제주	3.83										
대학졸업생 취업률	남	3.66	1.354	0.178	29세 이하	3.32	18.740	0.282	서울/ 경기	3.36	24.410	0.225	없음	0.00	9.030	0.700
					30대	3.61			호서	3.48			주 1회 이내	3.43		
					40대	3.33			영남	3.34			주 2회	3.47		
	여	3.39			50대	3.28			호남	3.56			주 3회	3.41		
					60세 이상	3.63			관동	4.13			주 4회 이상	3.48		
					제주	3.67										
학교교육의 효과	남	3.77	1.038	0.301	29세 이하	3.64	18.690	0.285	서울/ 경기	3.42	23.280	0.275	없음	0.00	15.740	0.204
					30대	3.65			호서	3.52			주 1회 이내	3.50		
					40대	3.55			영남	3.77			주 2회	3.44		
	여	3.58			50대	3.72			호남	3.72			주 3회	3.88		
					60세 이상	3.50			관동	4.13			주 4회 이상	3.69		
					제주	4.00										
학교생활 만족도	남	3.57	0.856	0.393	29세 이하	3.50	9.630	0.885	서울/ 경기	3.23	21.310	0.379	없음	0.00	15.800	0.201
					30대	3.43			호서	3.37			주 1회 이내	3.43		
					40대	3.33			영남	3.54			주 2회	3.47		
	여	3.40			50대	3.61			호남	3.52			주 3회	3.88		
					60세 이상	3.63			관동	4.13			주 4회 이상	3.36		
					제주	3.83										

〈표 23〉 응답자 특성에 따른 건강 범주에 대한 인식도

항목	성별				연령				거주지				방문 횟수			
	구분	M	t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기대수명	남	3.16	0.127	0.899	29세 이하	2.61	25.720	0.058	서울/경기	2.83	30.070	0.069	없음	0.00	18.580	0.099
					30대	3.25			호서	3.48			주 1회 이내	3.21		
					40대	3.12			영남	3.03			주 2회	2.79		
	여	3.13			50대	3.50			호남	3.36			주 3회	3.47		
					60세 이상	3.25			관동	3.63			주 4회 이상	3.19		
					제주	3.58										
고혈압 유병률	남	2.93	0.561	0.577	29세 이하	2.61	20.350	0.205	서울/경기	2.72	18.400	0.561	없음	0.00	14.620	0.263
					30대	2.92			호서	3.37			주 1회 이내	2.93		
					40대	2.74			영남	2.60			주 2회	2.53		
	여	2.81			50대	3.17			호남	2.80			주 3회	3.12		
					60세 이상	2.75			관동	2.75			주 4회 이상	2.88		
					제주	3.17										
당뇨병 유병률	남	2.96	0.418	0.677	29세 이하	2.50	22.990	0.114	서울/경기	2.69	31.720	0.046	없음	0.00	16.140	0.185
					30대	3.00			호서	3.48			주 1회 이내	3.07		
					40대	2.88			영남	2.60			주 2회	2.77		
	여	2.87			50대	2.89			호남	3.00			주 3회	3.12		
					60세 이상	3.25			관동	2.63			주 4회 이상	2.84		
					제주	3.42										
주관적 건강평가	남	3.18	0.444	0.657	29세 이하	2.82	16.740	0.403	서울/경기	2.83	35.320	0.018	없음	0.00	8.570	0.739
					30대	3.13			호서	3.52			주 1회 이내	3.14		
					40대	3.21			영남	2.86			주 2회	2.88		
	여	3.09			50대	3.11			호남	3.48			주 3회	3.18		
					60세 이상	3.50			관동	3.38			주 4회 이상	3.19		
					제주	3.58										
스트레스 인식정도	남	3.84	1.522	0.13	29세 이하	3.79	24.160	0.086	서울/경기	3.47	19.240	0.506	없음	0.00	5.940	0.919
					30대	3.60			호서	3.63			주 1회 이내	3.57		
					40대	3.74			영남	3.71			주 2회	3.50		
	여	3.57			50대	3.39			호남	3.76			주 3회	3.59		
					60세 이상	3.50			관동	3.50			주 4회 이상	3.72		
					제주	4.17										
건강 수준별 기대여명	남	3.36	1.191	0.235	29세 이하	2.82	20.360	0.205	서울/경기	2.91	24.550	0.219	없음	0.00	7.510	0.822
					30대	3.19			호서	3.37			주 1회 이내	2.96		
					40대	3.31			영남	3.20			주 2회	3.15		
	여	3.14			50대	3.56			호남	3.48			주 3회	3.35		
					60세 이상	3.25			관동	3.38			주 4회 이상	3.26		
					제주	3.67										
비만 유병률	남	2.98	0.909	0.367	29세 이하	2.36	19.830	0.228	서울/경기	2.72	23.280	0.275	없음	0.00	16.290	0.178
					30대	2.88			호서	3.04			주 1회 이내	2.75		
					40대	2.91			영남	2.51			주 2회	2.77		
	여	2.78			50대	3.00			호남	3.08			주 3회	3.18		
					60세 이상	3.25			관동	2.75			주 4회 이상	2.82		
					제주	3.42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률	남	2.89	1.04	0.302	29세 이하	2.32	23.710	0.096	서울/경기	2.55	26.490	0.150	없음	0.00	24.180	0.019
					30대	2.67			호서	3.00			주 1회 이내	2.64		
					40대	2.76			영남	2.49			주 2회	2.65		
	여	2.66			50대	3.22			호남	2.96			주 3회	3.35		
					60세 이상	3.25			관동	2.50			주 4회 이상	2.65		
					제주	3.33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남	2.91	1.459	0.15	29세 이하	2.29	31.940	0.010	서울/경기	2.55	18.110	0.580	없음	0.00	14.720	0.257
					30대	2.61			호서	2.70			주 1회 이내	2.50		
					40대	2.67			영남	2.57			주 2회	2.38		
	여	2.59			50대	3.11			호남	2.84			주 3회	3.18		
					60세 이상	3.63			관동	2.50			주 4회 이상	2.74		
					제주	3.33										

연령에 따라서는 비교적 많은 지표에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 차이를 보인 지표는 60대 이상이 3.50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이다.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는 "도서관은 집근처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으로 50대 이상이 3.17로 응답하여 타 연령대와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자기보고 범죄 피해율',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산업재해율', '화재발생건수' 지표에서 모두 50대 이용자가 도서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지별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이다. 이 지표에서 제주지역 거주자가 3.33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 안전범주에서 도서관 방문 횟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24> 참조).

응답자 특성에 따른 환경 범주의 인식 차이는 연령별과 거주지별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인 지표는 50대가 높은 평균을 보인 '미세먼지 농도'와 60대 이상의 응답자가 높은 응답을 보인 '에너지 빈곤층 비율', '하수도 보급률', '폐기물 재활용 비율',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가 있다.

거주지별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도서관은 추위에 대비한 난방비를 적절하게 소비하는 가구의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 '에너지 빈곤층 비율' 지표로 제주 지역 거주자가 평균 3.42로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5> 참조).

응답자 특성에 따른 소득/소비/자산 범주의

인식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과 방문 횟수에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지표는 없었으나 방문 횟수의 경우, 도서관 방문 횟수가 많은 이용자의 경우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비' 지표로, 두 지표 모두 60대 이상의 이용자가 3.88과 3.25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거주지별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지니계수'와 '소득만족도' 지표로, 두 지표 모두 제주 지역 거주자가 3.75와 3.67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표 26> 참조).

응답자 특성에 따른 고용/임금 범주의 인식 차이는 다음과 같다. 앞선 지표와 같이 성별과 방문 횟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인 지표는 '저임금근로자 비율'로 60대 이상이 4.0의 응답을 보여, 공공도서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보인 지표는 '실업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저임금근로자 비율'로 모두 제주 지역이 4.25, 3.83, 3.75로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표 27> 참조).

응답자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 범주의 인식 차이는 연령별과 거주지별 이용자의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과 방문 횟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해당 지표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과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이다. 거주지별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로 관동지역에서 4.0의 평균을 나타냈다(<표 28> 참조).

〈표 24〉 응답자 특성에 따른 안전 범주에 대한 인식도

항목	성별				연령				거주지				방문 횟수			
	구분	M	t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강력범죄 발생률	남	3.36	2.524	0.013	29세 이하	2.71	18.350	0.304	서울/경기	2.80	29.380	0.081	없음	0.00	12.450	0.410
					30대	2.96			호서	3.30			주 1회 이내	3.00		
					40대	3.19			영남	2.94			주 2회	2.85		
	여	2.89	2.524	0.013	50대	3.06	18.350	0.304	호남	3.00	29.380	0.081	주 3회	3.47	12.450	0.410
					60세 이상	3.50			관동	3.25			주 4회 이상	2.99		
									제주	3.58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남	3.43	2.09	0.038	29세 이하	2.89	34.330	0.005	서울/경기	2.95	23.930	0.245	없음	0.00	13.960	0.303
					30대	3.09			호서	3.22			주 1회 이내	3.07		
					40대	3.41			영남	2.97			주 2회	2.91		
	여	3.06	2.09	0.038	50대	3.06	34.330	0.005	호남	3.28	23.930	0.245	주 3회	3.41	13.960	0.303
					60세 이상	3.50			관동	3.63			주 4회 이상	3.22		
									제주	4.00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남	2.91	0.182	0.856	29세 이하	2.61	30.160	0.017	서울/경기	2.72	21.310	0.379	없음	0.00	15.270	0.227
					30대	2.81			호서	3.22			주 1회 이내	2.93		
					40대	3.02			영남	2.66			주 2회	2.71		
	여	2.87	0.182	0.856	50대	3.17	30.160	0.017	호남	2.96	21.310	0.379	주 3회	3.29	15.270	0.227
					60세 이상	3.13			관동	3.25			주 4회 이상	2.86		
									제주	3.25						
아동학대 피해경험률	남	3.07	1.171	0.243	29세 이하	2.75	25.600	0.060	서울/경기	2.70	28.130	0.106	없음	0.00	15.490	0.216
					30대	2.91			호서	3.19			주 1회 이내	2.93		
					40대	2.91			영남	2.66			주 2회	2.74		
	여	2.85	1.171	0.243	50대	3.06	25.600	0.060	호남	3.16	28.130	0.106	주 3회	3.24	15.490	0.216
					60세 이상	3.13			관동	3.38			주 4회 이상	2.90		
									제주	3.25						
자기보고 범죄 피해율	남	2.89	0.611	0.542	29세 이하	2.54	27.740	0.034	서울/경기	2.56	25.610	0.179	없음	0.00	14.320	0.281
					30대	2.75			호서	3.07			주 1회 이내	2.82		
					40대	2.81			영남	2.69			주 2회	2.59		
	여	2.77	0.611	0.542	50대	3.28	27.740	0.034	호남	2.88	25.610	0.179	주 3회	3.29	14.320	0.281
					60세 이상	3.13			관동	3.25			주 4회 이상	2.78		
									제주	3.33						
도로 사망률	남	2.93	1.752	0.082	29세 이하	2.57	21.980	0.144	서울/경기	2.48	25.610	0.179	없음	0.00	13.170	0.357
					30대	2.60			호서	3.22			주 1회 이내	2.64		
					40대	2.76			영남	2.40			주 2회	2.59		
	여	2.59	1.752	0.082	50대	2.94	21.980	0.144	호남	2.68	25.610	0.179	주 3회	3.29	13.170	0.357
					60세 이상	2.75			관동	3.00			주 4회 이상	2.61		
									제주	3.08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남	2.89	1.348	0.179	29세 이하	2.43	26.830	0.043	서울/경기	2.53	31.620	0.048	없음	0.00	18.800	0.094
					30대	2.63			호서	2.96			주 1회 이내	2.57		
					40대	2.83			영남	2.49			주 2회	2.68		
	여	2.64	1.348	0.179	50대	3.11	26.830	0.043	호남	2.72	31.620	0.048	주 3회	3.18	18.800	0.094
					60세 이상	2.75			관동	3.13			주 4회 이상	2.66		
									제주	3.33						
산업재해율	남	3.02	1.66	0.102	29세 이하	2.43	31.280	0.012	서울/경기	2.56	20.780	0.410	없음	0.00	13.620	0.325
					30대	2.68			호서	3.19			주 1회 이내	2.82		
					40대	2.83			영남	2.60			주 2회	2.79		
	여	2.65	1.66	0.102	50대	3.28	31.280	0.012	호남	2.76	20.780	0.410	주 3회	3.29	13.620	0.325
					60세 이상	2.75			관동	2.75			주 4회 이상	2.60		
									제주	3.08						
화재 발생 건수	남	2.96	2.164	0.032	29세 이하	2.50	26.910	0.043	서울/경기	2.53	22.880	0.295	없음	0.00	11.080	0.522
					30대	2.59			호서	3.11			주 1회 이내	2.86		
					40대	2.74			영남	2.34			주 2회	2.59		
	여	2.54	2.164	0.032	50대	2.89	26.910	0.043	호남	2.68	22.880	0.295	주 3회	3.06	11.080	0.522
					60세 이상	2.75			관동	2.50			주 4회 이상	2.53		
									제주	3.17						

〈표 25〉 응답자 특성에 따른 환경 범주에 대한 인식도

항목	성별				연령				거주지				방문 횟수			
	구분	M	t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미세먼지 농도	남	2.59	-0.175	0.862	29세 이하	2.11	28.580	0.027	서울/경기	2.45	28.350	0.101	없음	0.00	14.250	0.285
					30대	2.63			호서	2.96			주 1회 이내	2.64		
					40대	2.76			영남	2.29			주 2회	2.68		
	여	2.63			50대	3.00			호남	2.84			주 3회	3.00		
					60세 이상	2.75			관동	2.75			주 4회 이상	2.52		
					제주	3.17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남	3.00	0.12	0.905	29세 이하	2.54	17.870	0.332	서울/경기	2.73	26.110	0.162	없음	0.00	12.340	0.419
					30대	3.01			호서	3.04			주 1회 이내	2.96		
					40대	3.19			영남	2.69			주 2회	3.15		
	여	2.98			50대	3.00			호남	3.56			주 3회	3.18		
					60세 이상	3.13			관동	3.50			주 4회 이상	2.89		
					제주	3.50										
기후변화 불안도	남	2.86	0.182	0.856	29세 이하	2.36	17.170	0.375	서울/경기	2.64	22.930	0.292	없음	0.00	13.050	0.365
					30대	2.92			호서	3.19			주 1회 이내	2.89		
					40대	2.86			영남	2.49			주 2회	2.82		
	여	2.83			50대	3.00			호남	3.28			주 3회	3.29		
					60세 이상	3.25			관동	2.88			주 4회 이상	2.74		
					제주	3.17										
체감 환경 만족도	남	3.43	0.545	0.587	29세 이하	3.14	15.720	0.473	서울/경기	3.13	28.770	0.092	없음	0.00	6.700	0.876
					30대	3.43			호서	3.37			주 1회 이내	3.36		
					40대	3.33			영남	3.09			주 2회	3.32		
	여	3.32			50대	3.33			호남	4.00			주 3회	3.41		
					60세 이상	3.38			관동	3.88			주 4회 이상	3.34		
					제주	3.50										
에너지 빈곤층 비율	남	2.84	-0.131	0.896	29세 이하	2.32	40.920	0.001	서울/경기	2.55	44.370	0.001	없음	0.00	8.630	0.734
					30대	2.88			호서	3.22			주 1회 이내	3.00		
					40대	2.88			영남	2.71			주 2회	2.74		
	여	2.87			50대	3.22			호남	3.12			주 3회	3.24		
					60세 이상	3.63			관동	3.13			주 4회 이상	2.79		
					제주	3.42										
하수도 보급률	남	2.73	-0.146	0.884	29세 이하	2.32	38.790	0.001	서울/경기	2.61	22.020	0.339	없음	0.00	9.570	0.653
					30대	2.65			호서	3.19			주 1회 이내	2.96		
					40대	2.81			영남	2.37			주 2회	2.50		
	여	2.76			50대	3.17			호남	3.00			주 3회	3.18		
					60세 이상	3.88			관동	2.75			주 4회 이상	2.70		
					제주	3.08										
폐기물 재활용 비율	남	3.07	1.177	0.241	29세 이하	2.43	27.480	0.036	서울/경기	2.75	26.900	0.138	없음	0.00	11.300	0.503
					30대	2.89			호서	3.26			주 1회 이내	3.14		
					40대	2.86			영남	2.51			주 2회	2.88		
	여	2.82			50대	3.17			호남	2.88			주 3회	3.35		
					60세 이상	3.88			관동	3.00			주 4회 이상	2.72		
					제주	3.75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남	2.84	0.068	0.946	29세 이하	2.32	34.860	0.004	서울/경기	2.66	21.820	0.350	없음	0.00	13.240	0.351
					30대	2.84			호서	3.11			주 1회 이내	3.14		
					40대	2.76			영남	2.60			주 2회	2.74		
	여	2.83			50대	3.28			호남	2.88			주 3회	3.18		
					60세 이상	3.88			관동	2.75			주 4회 이상	2.71		
					제주	3.75										

<표 26> 응답자 특성에 따른 소득/소비/자산 범주에 대한 인식도

항목	성별				연령				거주지				방문 횟수			
	구분	M	t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1인당 GNI	남	3.16	0.781	0.436	29세 이하	2.54	30.400	0.016	서울/경기	2.77	28.340	0.102	없음	0.00	11.050	0.525
					30대	3.13			호서	3.15			주 1회 이내	3.00		
					40대	3.10			영남	3.03			주 2회	2.94		
	여	3.01	0.781	0.436	50대	3.00	30.400	0.016	호남	3.28	28.340	0.102	주 3회	3.35	11.050	0.525
					60세 이상	3.88			관동	3.50			주 4회 이상	3.04		
									제주	3.58						
균등화 중위소득	남	2.98	-0.24	0.811	29세 이하	2.54	24.460	0.080	서울/경기	2.84	30.100	0.068	없음	0.00	12.120	0.436
					30대	3.05			호서	3.00			주 1회 이내	3.00		
					40대	3.05			영남	2.89			주 2회	2.88		
	여	3.02	-0.24	0.811	50대	3.11	24.460	0.080	호남	3.24	30.100	0.068	주 3회	3.35	12.120	0.436
					60세 이상	3.88			관동	3.75			주 4회 이상	3.00		
									제주	3.33						
균등화 중위소비	남	2.98	0.171	0.864	29세 이하	2.50	26.480	0.048	서울/경기	2.73	28.410	0.100	없음	0.00	10.230	0.596
					30대	3.00			호서	2.96			주 1회 이내	2.75		
					40대	3.02			영남	2.94			주 2회	2.91		
	여	2.95	0.171	0.864	50대	3.17	26.480	0.048	호남	3.20	28.410	0.100	주 3회	3.35	10.230	0.596
					60세 이상	3.25			관동	3.75			주 4회 이상	2.96		
									제주	3.08						
가구평균 순자산	남	2.84	-0.346	0.73	29세 이하	2.46	23.020	0.113	서울/경기	2.70	30.030	0.069	없음	0.00	14.700	0.258
					30대	2.93			호서	3.04			주 1회 이내	2.61		
					40대	2.88			영남	2.80			주 2회	2.68		
	여	2.91	-0.346	0.73	50대	3.22	23.020	0.113	호남	3.00	30.030	0.069	주 3회	3.24	14.700	0.258
					60세 이상	3.25			관동	3.38			주 4회 이상	2.99		
									제주	3.25						
지니계수	남	2.82	-0.936	0.351	29세 이하	2.79	11.980	0.746	서울/경기	2.86	34.260	0.024	없음	0.00	12.800	0.384
					30대	3.00			호서	3.04			주 1회 이내	2.86		
					40대	2.86			영남	2.69			주 2회	2.74		
	여	3.00	-0.936	0.351	50대	3.11	11.980	0.746	호남	2.96	34.260	0.024	주 3회	3.12	12.800	0.384
					60세 이상	3.25			관동	3.38			주 4회 이상	3.03		
									제주	3.75						
상대적 빈곤율	남	2.98	0.494	0.622	29세 이하	2.75	18.050	0.321	서울/경기	2.81	22.830	0.297	없음	0.00	17.790	0.122
					30대	2.99			호서	3.19			주 1회 이내	2.57		
					40대	2.81			영남	2.77			주 2회	2.74		
	여	2.88	0.494	0.622	50대	2.89	18.050	0.321	호남	2.80	22.830	0.297	주 3회	3.41	17.790	0.122
					60세 이상	3.25			관동	3.13			주 4회 이상	2.98		
									제주	3.25						
소득만족도	남	3.09	0.709	0.479	29세 이하	2.71	11.370	0.786	서울/경기	2.80	31.690	0.047	없음	0.00	12.190	0.431
					30대	3.03			호서	3.22			주 1회 이내	3.07		
					40대	3.12			영남	2.83			주 2회	2.91		
	여	2.96	0.709	0.479	50대	2.94	11.370	0.786	호남	3.04	31.690	0.047	주 3회	3.35	12.190	0.431
					60세 이상	3.13			관동	3.38			주 4회 이상	2.94		
									제주	3.67						
소비생활 만족도	남	3.34	1.378	0.173	29세 이하	2.93	13.470	0.638	서울/경기	2.97	27.720	0.116	없음	0.00	11.730	0.468
					30대	3.16			호서	3.30			주 1회 이내	3.18		
					40대	3.21			영남	3.00			주 2회	3.21		
	여	3.06	1.378	0.173	50대	2.94	13.470	0.638	호남	3.12	27.720	0.116	주 3회	3.41	11.730	0.468
					60세 이상	3.50			관동	3.38			주 4회 이상	3.03		
									제주	3.83						

〈표 27〉 응답자 특성에 따른 고용/임금 범주에 대한 인식도

항목	성별				연령				거주지				방문 횟수			
	구분	M	t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고용률	남	3.43	1.451	0.149	29세 이하	3.04	21.490	0.161	서울/경기	3.09	27.270	0.128	없음	0.00	10.500	0.572
					30대	3.44			호서	3.37			주 1회 이내	3.04		
					40대	3.10			영남	3.00			주 2회	3.09		
	여	3.17	50대	2.89	호남	3.28			주 3회	3.35						
			60세 이상	3.50	관동	3.50			주 4회 이상	3.33						
			제주	4.08												
실업률	남	3.39	0.79	0.43	29세 이하	3.04	15.700	0.474	서울/경기	3.00	38.280	0.008	없음	0.00	13.920	0.306
					30대	3.44			호서	3.52			주 1회 이내	3.21		
					40대	3.17			영남	3.03			주 2회	3.27		
	여	3.24	50대	3.11	호남	3.52			주 3회	3.29						
			60세 이상	3.50	관동	3.50			주 4회 이상	3.29						
			제주	4.25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남	3.16	1.416	0.159	29세 이하	2.61	23.920	0.091	서울/경기	2.70	39.260	0.006	없음	0.00	8.750	0.724
					30대	3.00			호서	3.07			주 1회 이내	3.04		
					40대	2.93			영남	2.63			주 2회	2.71		
	여	2.87	50대	3.00	호남	3.44			주 3회	2.94						
			60세 이상	3.63	관동	3.00			주 4회 이상	3.01						
			제주	3.83												
근로시간	남	3.00	1.23	0.22	29세 이하	2.46	23.490	0.101	서울/경기	2.64	20.600	0.421	없음	0.00	5.870	0.922
					30대	2.84			호서	2.96			주 1회 이내	2.79		
					40대	2.81			영남	2.60			주 2회	2.85		
	여	2.76	50대	2.94	호남	3.00			주 3회	3.06						
			60세 이상	3.63	관동	3.00			주 4회 이상	2.77						
			제주	3.58												
저임금 근로자 비율	남	2.98	1.381	0.169	29세 이하	2.54	35.640	0.003	서울/경기	2.66	36.860	0.012	없음	0.00	15.980	0.192
					30대	2.67			호서	2.70			주 1회 이내	2.79		
					40대	2.91			영남	2.43			주 2회	2.79		
	여	2.72	50대	2.83	호남	3.16			주 3회	2.77						
			60세 이상	4.00	관동	3.00			주 4회 이상	2.78						
			제주	3.75												
일자리 만족도	남	3.11	0.591	0.556	29세 이하	2.68	20.800	0.186	서울/경기	2.92	23.250	0.277	없음	0.00	5.730	0.929
					30대	3.00			호서	2.89			주 1회 이내	3.07		
					40대	3.10			영남	2.86			주 2회	2.94		
	여	3.00	50대	3.17	호남	3.40			주 3회	3.35						
			60세 이상	3.88	관동	3.13			주 4회 이상	2.99						
			제주	3.58												

〈표 2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 범주에 대한 인식도

항목	성별				연령				거주지				방문 횟수			
	구분	M	t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공적연금 가입률	남	3.11	1.864	0.064	29세 이하	2.39	25.240	0.066	서울/경기	2.70	25.660	0.177	없음	0.00	11.340	0.500
					30대	2.81			호서	2.85			주 1회 이내	2.79		
					40대	2.95			영남	2.51			주 2회	2.85		
	여	2.75			50대	3.06			호남	3.04			주 3회	3.18		
					60세 이상	3.63			관동	3.38			주 4회 이상	2.79		
					제주	3.75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남	2.91	-0.221	0.825	29세 이하	2.68	26.970	0.042	서울/경기	2.77	45.930	0.001	없음	0.00	13.640	0.324
					30대	2.91			호서	2.74			주 1회 이내	2.86		
					40대	3.10			영남	2.57			주 2회	2.85		
	여	2.95			50대	2.89			호남	3.52			주 3회	2.88		
					60세 이상	3.50			관동	4.00			주 4회 이상	3.01		
					제주	3.50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남	2.93	1.486	0.139	29세 이하	2.29	39.500	0.001	서울/경기	2.58	28.500	.0098	없음	0.00	17.610	0.128
					30대	2.64			호서	3.00			주 1회 이내	2.71		
					40대	2.93			영남	2.29			주 2회	2.65		
	여	2.64			50대	2.83			호남	3.00			주 3회	3.24		
					60세 이상	3.50			관동	2.88			주 4회 이상	2.64		
					제주	3.33										

마지막으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거 범주의 인식 차이 역시 연령별과 거주지별로 이용자의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60대 이상의 이용자가 평균 3.38의 응답을 보인 '1인당 주거면적' 지표이다. 거주지별 인식 차이를 보인 지표는 '통근/통학 소요시간'으로 관동 지역 거주자가 3.2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표 29〉 참조).

4.7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연구 문제 세 가지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 결과이다. 평균이 3.0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

는 지표는 45개로, 이는 상향확산이론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 볼 수 있다. 〈표 30〉은 공공도서관이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둘째, '사서가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 결과이다. 사서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에서 차이가 있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총 13개이며 결과는 〈표 31〉과 같다.

셋째,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 결과이다.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도서관 방문 횟수와 같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에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유의미한

〈표 29〉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거 범주에 대한 인식도

항목	성별				연령				거주지				방문 횟수			
	구분	M	t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구분	M	χ^2	p
1인당 주거면적	남	2.82	1.383	0.168	29세 이하	2.29	42.100	0.000	서울/경기	2.58	27.450	0.123	없음	0.00	16.770	0.158
					30대	2.48			호서	2.59			주 1회 이내	2.46		
	여	2.56	1.383	0.168	40대	2.86	42.100	0.000	영남	2.31	27.450	0.123	주 2회	2.68	16.770	0.158
					50대	2.89			호남	2.88			주 3회	2.77		
					60세 이상	3.38			관동	3.13			주 4회 이상	2.6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남	2.86	1.318	0.189	29세 이하	2.39	25.710	0.058	서울/경기	2.56	22.300	0.325	없음	0.00	6.720	0.876
					30대	2.56			호서	3.00			주 1회 이내	2.68		
	여	2.60	1.318	0.189	40대	2.79	25.710	0.058	영남	2.23	22.300	0.325	주 2회	2.65	6.720	0.876
					50대	2.94			호남	3.04			주 3회	2.88		
					60세 이상	3.38			관동	3.00			주 4회 이상	2.63		
통근/통학 소요시간	남	2.86	1.338	0.183	29세 이하	2.54	17.710	0.341	서울/경기	2.56	34.720	0.022	없음	0.00	8.430	0.751
					30대	2.52			호서	2.82			주 1회 이내	2.46		
	여	2.59	1.338	0.183	40대	2.81	17.710	0.341	영남	2.26	34.720	0.022	주 2회	2.71	8.430	0.751
					50대	2.94			호남	3.00			주 3회	2.77		
					60세 이상	3.00			관동	3.25			주 4회 이상	2.69		
주거비용	남	3.00	1.283	0.201	29세 이하	2.50	26.110	0.052	서울/경기	2.67	29.670	0.075	없음	0.00	16.640	0.164
					30대	2.77			호서	3.07			주 1회 이내	2.93		
	여	2.74	1.283	0.201	40대	3.02	26.110	0.052	영남	2.34	29.670	0.075	주 2회	2.85	16.640	0.164
					50대	2.94			호남	3.12			주 3회	2.94		
					60세 이상	2.75			관동	3.50			주 4회 이상	2.73		
주거환경 만족도	남	3.02	-1.209	-1.165	29세 이하	3.25	22.690	0.122	서울/경기	3.09	22.800	0.299	없음	0.00	17.690	0.125
					30대	3.19			호서	3.11			주 1회 이내	3.11		
	여	3.28	-1.209	-1.165	40대	3.31	22.690	0.122	영남	3.03	22.800	0.299	주 2회	3.21	17.690	0.125
					50대	3.17			호남	3.56			주 3회	3.24		
					60세 이상	3.00			관동	4.13			주 4회 이상	3.25		
								제주	3.33							

〈표 30〉 공공도서관이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지표

평가지표	M	평가지표	M	평가지표	M
평균여가시간	3.696	여가활용만족도	3.383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3.901
1인당 국내의 여행일수	3.11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3.368	문화여가 지출비용	3.216
삶에 대한 만족도	3.854	긍정정서	3.883	부정정서	3.749
가족집중빈도	3.269	가족관계 만족도	3.415	자살률	3.047
사회적 관계망	3.175	사회단체 참여율	3.398	지역사회 소속감	3.561
투표율	3.099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3.170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3.626
시민의식	3.257	부패인식지수	3.263	대인신뢰	3.333
기관신뢰	3.427	유아교육 취학률	3.175	고등교육 이수율	3.374
평생교육 참여율	3.848	학업 중단률	3.287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3.474
PISA 백분위 순위	3.480	대학졸업생 취업률	3.462	학교 교육의 효과	3.626
학교생활 만족도	3.444	기대수명	3.140	주관적 건강평가	3.117
스트레스 인식정도	3.637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3.199	강력범죄 발생률	3.012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3.152	체감 환경 만족도	3.345	1인당 GNI	3.047
균등화 중위소득	3.012	소비생활 만족도	3.129	고용률	3.234
실업률	3.275	일자리 만족도	3.029	주거환경 만족도	3.216

〈표 31〉 이용자 구분별 차이를 보이는 삶의 질 지표

평가지표	t	p	평가지표	t	p	평가지표	t	p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2.06	0.041	한부모 가구비율	-2.519	0.013	사회단체 참여율	3.009	0.003
지역사회 소속감	3.414	0.001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2.283	0.024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375	0.019
평생교육 참여율	2.283	0.024	스트레스 인식정도	3.383	0.038	자기보고 범죄 피해율	-2.205	0.029
도로 사망률	-2.384	0.018	화재 발생 건수	-1.998	0.047	고용률	2.351	0.020
근로시간	-2.100	0.037	-	-	-	-	-	

〈표 32〉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이는 삶의 질 지표

응답자 특성 구분	평가지표	t/χ ²	p	평가지표	t/χ ²	p
성별(t)	한부모 가구비율	2.712	0.007	사회적 관계망	2.294	0.023
	강력범죄 발생률	2.524	0.013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2.090	0.038
	화재발생 건수	2.164	0.032	-	-	-
연령별(χ ²)	삶에 대한 만족도	26.490	0.047	긍정정서	43.500	0.000
	자원봉사활동참여율	34.990	0.004	시민의식	34.610	0.004
	부패인식지수	27.390	0.037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31.940	0.010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34.330	0.005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30.160	0.017
	자기보고 범죄 피해율	27.740	0.034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26.830	0.043
	산업재해율	31.280	0.012	화재 발생 건수	26.910	0.043
	미세먼지 농도	28.580	0.027	에너지 빈곤층 비율	40.920	0.001
	하수도보급률	38.790	0.001	폐기물 재활용 비율	27.480	0.036
	GDP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4.860	0.004	1인당 GNI	30.400	0.016
	균등화 중위소비	26.480	0.048	저임금 근로자 비율	35.640	0.003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	26.970	0.042	개인부담 의료비비중	39.500	0.001
	1인당 주거면적	42.100	0.000	-	-	-
거주지별(χ ²)	긍정정서	34.300	0.024	시민의식	31.490	0.049
	유아교육 취학률	36.340	0.014	당뇨병 유병률	31.720	0.046
	주관적 건강평가	35.320	0.018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31.620	0.048
	에너지 빈곤층 비율	44.370	0.001	지니계수	34.260	0.024
	소득만족도	31.690	0.047	실업률	38.280	0.008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39.260	0.006	저임금 근로자 비율	36.860	0.012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	45.930	0.001	통근/통학 소요시간	34.720	0.022
방문 횟수별(χ ²)	삶에 대한 만족도	23.050	0.027	독거 노인비율	21.730	0.041
	자살률	22.820	0.029	사회적 관계망	26.650	0.009
	사회단체 참여율	26.350	0.010	지역사회 소속감	23.400	0.025
	투표율	25.900	0.011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45.690	0.000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24.180	0.019	-	-	-

인식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총 5개이며, 연령별 차이를 보이는 지표는 23개, 거주지별 차이를 보이는 지표는 14개, 도서관 방문 횟수별로

차이를 보이는 지표는 9개였다. 각각의 결과는 〈표 32〉와 같다.

5. 결론 및 제언

연구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경험 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상향확산이론에 근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의 질 지표는 총 45개이며,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지표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지표로 나타났다. 둘째, 사서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에는 몇 가지 차이가 발견되었다. 총 13개 지표에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사서의 생각이 아닌 이용자의 직접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기획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 사서가 인식하는 도서관의 영향정도가 높은 지표에 대해서는 이용자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이용자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지표들에 대한 신규 서비스 기획을 통해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에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에 따

른 인식 차이는 5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는 23개,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14개, 도서관 방문 횟수에 따른 차이는 9개 지표였다. 이를 통해 각 특성 간 인식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용자를 위한 세심한 서비스 개발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획, 공공도서관이 속한 지역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기획, 도서관 우수 방문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맞춤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도서관 이용자에게는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될 수 있다. 넷째, 기획과 더불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삶의 질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공공도서관이 국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였다는 것과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공공도서관에서 적용 가능한 삶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공공도서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지역사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스포스시의 경험적 증거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243-270.
- 고명철, 최상욱. 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회보』, 46(4): 103-126.

- 국제무역연구원. 2016.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서울: 국제무역연구원.
- 김병섭, 최성주, 최은미. 2015.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 연구. 『한국행정학보』, 49(4): 97-122.
- 변필성. 2005. Quality of Life(QOL). 『국토』, 10: 52-52.
-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47-89.
- Evans, P. 1994. Eroding Canadian Social Welfare: The Mulroney Legacy, 1984-1993.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28(2): 107-119.
- Sirgy, M. J. 2001. *Handbook of Quality-of-Life Research: An Ethical Marketing Perspective*. Springer Netherlands.: 재인용. 고명철, 최상욱. 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4): 103-126.

[참고웹사이트]

국민 삶의 질 지표 [online]. [cited 2016.10.10]. <<http://qol.kostat.go.kr/blife/main.do>>.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Pill Sung. 2005. "Quality of Life(QOL)." *PLANNING AND POLICY*, 10: 52-52.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2016. *Korea in the world in 2016*. Seou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 Kim, ByongSeob, Sungjoo Choi, and Eunmi Choi. 2015. "Happiness and Government's Role: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Quality of Life between Public Services and Happines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4): 97-122.
- Ko, Myeong Chul. 2013. "The Effects of Citizen Satisfaction on Community Quality of Life: the Evidence from the City of Sioux Falls City in U. S." *Korean Government Review*, 20(2): 243-270.
- Ko, Myeong Chul and Sang Ok Choi. 2012. "The administrativ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e QoL Stud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4): 103-126.
- Lim, Geun-Sik. 2012. "Recognition of Local Residents on Quality of Life and Its Influencing Factors - Focused on the Cities and Counties in Gangwon Province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10(1): 47-89.